

제16회 자금세탁방지의 날

기 념 사

2022. 11. 28 (월)

금융정보분석원장
박 정 훈

I. 인사말씀

안녕하십니까?

금융정보분석원장 박정훈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제16회 자금세탁방지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해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오늘 뜻깊은 축사를 해주신

관세청 윤태식 청장님과 은행연합회 김광수 회장님께
각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국세청 김태호 차장님,

해양경찰청 서승진 차장님을 비롯하여

존경하는 선배님들이신

금융정보분석원의 역대 원장님들,

그리고 자금세탁방지 업무의 중요한 파트너인

법집행기관과 금융회사 관계자 여러분 등

귀빈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Ⅱ. 대내외 정책환경

내외 귀빈 여러분

2001년 외환자유화가 전면 시행되면서
이로인한 불법자금의 국내외 유출입에 대비하고,
건전하고 투명한 금융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FIU가 설립되었습니다.

FIU는 국제사회 논의를 통해 마련된 규범을
국내 금융시스템에 효과적으로 적용하고
지속적으로 법과 제도를 정비해오면서
자금세탁방지제도를 고도화해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2020년 FATF의 제4차 상호평가에서 한국은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관련 위험을 잘 이해하고,
견실한 법·제도적 장치를 바탕으로
긍정적인 성과를 내고 있으며,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금융정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범죄수익 환수 등에서도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2020년도에는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가상자산사업자에게도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적용할 수 있도록
특금법을 개정하여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성 제고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국가와 이해관계자가 개입되는
무역기반 자금세탁(TBML: Trade Based Money Laundering)
발생가능성이 증가하는 등
자금세탁방지제도가 발전하는 속도만큼이나
자금세탁 행위의 복잡성도 심화되어,

자금세탁방지 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Ⅲ. 향후 정책 방향

내외 귀빈 여러분

금융정보분석원은

정책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자금세탁방지 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11월 한 달을 「자금세탁방지의 달」로 정하고

FIU의 모든 업무관계자분들을 만나 뵈면서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일선 현장에서 자금세탁의무를 이행하고 계시는

금융기관 등 의무이행 대상기관부터

FIU 정보를 제공받는 법집행기관 관계자분들,

FIU의 검사권을 위탁받아 금융회사의

자금세탁방지의무 이행상황을 점검해주시는

검사수탁기관분들,

그리고 가상자산사업자분들까지 빠짐없이 만나 뵈고 후,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분들로 구성된
정책자문위원회의 의견도 수렴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FIU는 향후 자금세탁방지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첫째, 위협에 대한 사전적·예방적 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금융회사가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여
자발적·상시적인 위협관리 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교육체계를 개편하고
컨설팅 중심의 사전 감독을 해나가겠습니다.

둘째,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제재 양정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금전제재 최고 수준이 과태료 1억원에 불과하여
해외와 비교시 그 수준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있어왔습니다.

금전제재를 포함하여
제재의 실효성을 보다 높일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나가겠습니다.

셋째,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위험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특금법 개정 후 강화된 국제기준에 맞추어
가상자산사업자가 위험도가 높은 사업자
즉, 개인지갑이나 해외 거래소 등과 가상자산 이전거래시,
그 경로를 보다 투명하게 관리하고
STR 보고 등 위험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상자산 검사매뉴얼」을 마련하여 공개하고,
가상자산사업자의 위법·부당행위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사업자 스스로 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FIU의 대내외적 리더십을 강화하겠습니다.

금융회사와 법집행기관 사이에서
단순히 금융정보의 중개자 역할에 머무르지 않고,
양질의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협력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도 그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국제논의에 적극 참여하는 것은 물론이며,
자금세탁방지시스템 구축을 위한 컨설팅을 제공하거나
후발국 초청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국제기구와 공조하여 후발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IV. 마무리 말씀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우리가 흔히 민관협력이라 하는

PPP, 즉 Public-Private Partnership을 이야기하면
도로, 항만,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의 건설과 운영을
민간이 수행하는 것을 떠올리실 것입니다.

하지만 PPP는 이와 같이 좁은 의미에 머무르지 않고
정부 정책의 영역에서도 새로운 감독 패러다임으로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금세탁 행위는 하나의 생명체와 같아서
끊임없이 시스템의 약한 곳을 찾아 파고드는 속성이 있습니다.

정부의 일방적 규제만으로
모든 잠재된 자금세탁 위험에 대응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
민간 분야의 자발적 노력이 그 어떤 분야보다 필요합니다.

자금세탁방지제도의 최일선에 계시는
금융회사 여러분들이 스스로 주도하여
상시적으로 위험에 대비하고 대처해나가야 합니다.

금융회사에서 수행하는 자금세탁 방지 업무가
건전하고 투명한 금융질서를 확립하고 신뢰를 쌓을 수 있는
핵심요소임을 유념하시고,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금융정보분석원도

금융회사가 스스로 점검하고 개선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자금세탁방지 업무가 고도화될 수 있게 유도하는
조력자이자 촉매제(facilitator) 역할을 해나갈 것이며,

법집행기관, 금융회사 등 관계기관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나라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이 견고히 유지되고
지속적으로 발전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